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현 승 환 *

〈 목 차 〉

1. 들어가며
2. 김만덕 인물전의 역사성과 문학성
3. 갑인년 흉년과 만덕의 구휼
4. 만덕의 문학화 과정
5. 마무리

1. 들어가며

김만덕은 1739년 출생하여 1812에 사망하였고,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털어 식량을 사다 빈민을 구휼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 1천 1백여 명을 살렸다는 의로운 일어난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김만덕에 관한 기록은 정조실록(정조19), 채제공의 김만덕전(변암집 1823년 간행)이 가장 오래 자료이고 그 이후, 유재건(이향견문록, 1862), 김석익(탐라기년,¹⁾ 1918, 행수김만덕이라 함.) 등에 의해 잊혀지지 않고 문헌에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김만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²⁾ 역사적

* 제주대 교수

1) 심재 김석익(1885-1956)망국의 슬픔을 안고 후진들에게 애국의 길을 일깨우기 위하여 편술한 것이다. 편년체로 수록함.

사실과 그것의 문학화가 중점이다. 이야기의 사실적 기록인 기사화는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구묘비문〉, 「다산시문집」, 남만리의 「탐라지」, 김석익의 「탐라기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담수계의 「탐라지」, 석주명의 「제주도수필」, 한치문의 「탐라실록」, 「제주도지」, 「제주시30년사」, 부영성의 「구좌읍지」, 「북제주군지」, 「제주선현지」, 김찬흠의 「제주사인명사전」 등이 있다. 또한 그것의 문학화는 인물전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채제공의 〈만덕전〉, 이재체의 〈만덕전〉, 심노승의 〈만덕전〉, 유재건의 〈만덕〉, 조수삼의 〈만덕〉,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 김태능의 〈김만덕전〉, 이전문의 〈제주의 첫 여상인·만덕〉,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 등이 있다.

이들의 선후와 영향관계를 살핀 결과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그 이후는 전승되는 구비자료와 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보완하는 정도이다. 문학작품으로는 채제공의 〈만덕전〉이 가장 앞서며 그 이후 나온 유재건의 〈만덕〉은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 중에서도 심노승의 〈만덕전〉은 유일하게 만덕을 부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기록이지만 노론인 심노승과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과의 관계를 고려하면³⁾ 개인적 감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여 이 글에서는 소개에 그친다.

그 이후 여러 한시 작품 속에서 만덕이 언급되지만⁴⁾ 실록과 채제공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대 연구자들은 그 자료의 선별에 따라 나름대로의 만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속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채제공의 만덕전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만덕전이 나타나며 많은 논자들이 자료의 선별에 따라 논의의 폭이 달라져 왔다. 따라서 이 글은 실존 인물 만덕의

2) 윤치부가 정리한 바 있다.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제주도, 2004. 12.

3) 심노승, 「눈물이란 무엇인가」, 김영진 옮김, 태학사, 2001, p.91.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6, pp.44~46.

4) 윤치부의 연구("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제주도, 2004. 12.)에 따르면 이가환의 송만덕환담라, 박제가의 한시, 기생 흥도의 한시, 조수삼의 한시 등이 있다.

문학화 과정을 추적하여 그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거리를 밝혀보려 한다.

2. 김만덕 인물전의 역사성과 문학성

1) 역사적 사실과 전문학

만덕이 1739년에 태어나서 1812년에 사망하기까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녀가 베푼 사회사업에 관한 공적을 인정한 공식적인 기록은 정조실록 20년 병진 12월조 기록, 승정원 일기 기록, 채제공의 만덕전, 이가환의 시, 추사 김정희의 글(恩光衍世), 만덕의 비문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가환의 시는 그가 행한 업적을 시로 표현한 것이기에 구체적 사실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김정희의 글 역시 찬사일 뿐이며, 구체적 내용은 채제공의 만덕전과 정조실록 내용이다.

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丙寅 濟州妓萬德 散施貨財賑活饑民 特使啓問 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治邑給糧”이라는 42자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간단하다. 왕조실록은 공정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므로 제주도에 사는 미천한 객주집 주모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겼느냐고 할 수 있지만 언급 대상의 신분에 따라 구체화 정도가 달랐던 것이다. 같은 정조실록에 실렸어도 기녀가 아닌 양가녀를 다룬 銀愛기사⁵⁾는 자세한 것이

5) 은애는 전라도 강진현에 살고 있는 양가의 여자로서 자신의 정조를 모함하는 같은 마을의 노파를 살해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게 되었다. 때마침 정조 14년(경술년) 여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임금의 친히 사형수를 심리하고 사면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때 양가의 여자로서 모함을 입고 상대를 죽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살해사건이 보고되자, 治者의 입장에서 오히려 倫常을 숭상하고 氣節을 중히 여긴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조는 그녀를 석방케 하고 그 내용을 호남에 널리 전파하도록 하고하였다. 또한 당시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이덕무에게 명하여 은애전을 지어 내각의 日曆 곧 규장각 일기에 실도록 하였다.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연구』, 태학사, 1991. 참조.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정조실록에 수록된 내용 중 양인에 관한 기록으로는 '은애'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은애는 자신의 정조를 모함하는 노파를 살해했으나 정조대왕은 윤리와 절개를 중히 여겨 오히려 은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당시 규장각 검사관인 이덕무에게 명하여 은애전을 짓게 하였다. 정조가 직접 이덕무에게 은애전을 짓게 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는 모범이 되는 인물에게는 그 전을 지어 칭찬했음을 알게 된다.

채제공 역시 만덕의 공을 칭찬하고자 전을 지어 만덕과 헤어질 때 주었다. 전의 특성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했는데, 실록에 실린 양가녀 은애의 전은 자세하고, 만덕의 전은 왜 간략할까. 게다가 꼭 같은 여인에 대한 기록인데 한 사람은 양인이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녀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 먼저 기술된 채제공의 만덕 전 내용을 검토하여 단락별로 나누고 실록의 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①만덕은 애초 탐라 양가의 딸이다.
- ②조실부모로 기생이 되었으나, 20세에 진정하여 다시 양민이 되다.
- ③殖財에 재능이 있어 부자가 되다.
- ④탐라에 흉년들자 육지에서 쌀을 실어와 기민을 구제하다.
- ⑤목사의 장계를 접한 왕은 소원을 들어줄 것을 하교하다.
- ⑥한양과 금강산 구경을 원하자, 노수, 역사, 음식을 제공토록 하교하다.
- ⑦入京하여 내의원 의녀가 되다.
- ⑧금강산 유람하다.
- ⑨채상국에게 작별 인사하니, 채상국이 傳을 지어주며 위로하다.

이 내용은 채제공이 기술한 것이므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정조실록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⁶⁾

구성	만덕전	정조실록
서두부	1)만덕은 애초 탐라 양가의 딸임	1)만덕은 제주도 기생임
전개부	2)조실부모로 기생이 되었으나, 20세에 진정하여 다시 양민이 됨.	
	3)飢饉에 재능이 있어 부자가 됨.	
	4)탐라에 흉년들자 육지에서 쌀을 실어와 기민을 구제함.	2)재화 풀어 기민구제
	5)목사의 장계를 접한 왕은 소원을 들어줄 것을 하교	3)목사의 장계를 접하고 왕이 포상을 하교
	6)한양과 금강산 구경을 원하자, 노수,역사, 음식을 제공토록 하교	5)포상 사양, 금강산유람 희망하자 연도고을에서 식량제공토록 하교
	7)入京하여 내의원 의녀가 됨	
	8)금강산 유람 후 채상국에서 작별 인사	
논찬부	9)채상국이 傳을 지어주며 위로	

만덕전과 실록의 내용을 참고로 공통되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면, <제주도 기생 만덕이 재화를 풀어 기민을 구제했다는 목사의 장계를 접하고 금강산 유람을 희망한다는 그녀의 뜻대로 포상을 하교했다.>라는 것 뿐이다. 거기서 제외된 내용인,

- 20여 세에 다시 양민이 되었다.
- 식재에 재능이 있어 부자가 되었다.
- 입경하여 내의원 의녀가 되었다.

6) 이동근, 『조선후기 「전」문학연구』, 태학사, 1991, pp.98-102.

라는 것은 만덕을 살피는데 주목을 요하는 요소이다.

실록의 사실을 근거로만 정리하면, 만덕은 기생인데, 자신의 재화를 풀어 기민구제를 했기에 포상으로 금강산 유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 고작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 만덕의 신분이 기생 여부에 있다. 기생이지만 기민구제를 했다면 양인이 기민구제를 한 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만덕은 기생일까 양인일까? 정조실록의 김만덕 기록으로 보면 기생이 틀림없다. 그런데 채제공의 만덕전의 내용에 따르면 양인으로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만덕전과 정조실록의 기술 방식의 비교를 통하여 위 표에서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채제공이 지은 만덕전은 객관적 사적의 주관적 기술이다. 더구나 그는 변암집 39권을 남기고 14편의 전을 지을 정도의 뛰어난 문장력을 갖춘 인물이다. 이조참판, 우의정, 영의정 등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직간접으로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전을 창작했기에 그의 전은 구체화되고, 전의 주인공의 특성에 맞게 흥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채제공의 만덕전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학에 대한 논의는 소설문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사항이다. 김균대⁷⁾는 조선후기 전문학을 연구하는 자리에서 인물이 서술 중심의 대상이 되어 서술의 성격이 완성된 전의 출현은 漢의 시대에 들어와 기술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라고 보았다. 기전체 역사에서는 모두 열전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전은 문인들이 사사로이 인물의 행적과 거기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펴는 일반적인 서사문의 한 형식이 되었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紀와 傳의 양식은 編年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문장은 몇대로의 논술이 아닌 사실에 밀착해서 씌어진다'⁸⁾고 했다. 이렇게 기전체에서 시작된 전은 개인의 전을 기록하면서도 인물에 대한 생의 단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작가의 인물에 관한 주관적 관념을 드러내는, 필요한 에

7) 김균대, "전문학",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 편찬위원회, p.94

8) 유협저, 최신희 역주, 『문심조룡』, 사전, 제16, p.259.

피소드만을 선택하여 테마적 구성을 하거나 시간적 구성과 함께 대위법적 구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료의 취사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기는 구성면에서 자연히 '허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엔 작가가 대상 인물의 일관된 생애와 성격을 그려내기 위해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사실까지도 주저없이 사용하여 허구의 진실은 더욱 확대된다.⁹⁾ 이러한 요소는 훗날 전설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을 기술하는 작가의 판단에 따라 허구의 진실을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문학화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만덕전도 이러한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의 일반적 구성을 보면¹⁰⁾, 도입부에서 대상 인물에 대한 성명, 출생, 가계 족보, 성격을 제시한 뒤, 신화처럼 탄생 과정 같은 것은 없이 바로 사건 행적이 나온다. 그러나 주인공의 가계와 신분 및 성격 등의 사항을 모를 때에는 출생 지역을 밝히는 정도이거나 이것마저 밝히기 어려울 때에는 대개 "某某人은 不知何許人也"라고 시작한다.

그 다음, 후반부에는 인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되는데, 기록이 없을 때 그에 대해 알려진 삶의 결과를 두고 의론의 형식으로 기사화하게 된다. 이를 史傳의 變體라 한다. 이것은 사건의 서술이 없어서 서사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변체가 아닌 정체는 대개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종적으로 서술한다. 시간적 순서에 의한 서술의 경우도 사건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 있는가 하면 행적의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로 그친 것도 있다.

사건 과정을 서술한 기사는 대개 생애의 단면을 서술할 때, 대화도 삽입하면서 장면을 서술하거나 제시된 삽화들이 필연적 관계에 따라 전개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의 진실을 서술하여 서술자의 의식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상상적 충동에

9) Alan Shelston 저, 이정식 역, 「전기문학」, 문학비평총서 16, 서울대출판부, 1979, "5. 사실의 진실과 허구의 진실" 참조

10) 김균태, "전문학",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 편찬위원회, pp.102-103.

의한 허구의 진실까지 끌어들인다.

그러면 실록은 어떤가? 전문학이 허구적 사실까지 넣으면서 기술하는 반면, 실록은 객관적 사적의 객관적 기술이 생명이다. 허구적 사실이 아닌 진실을 지배계급적 질서의식 속에서 간략하게 기술한다. '당시 한 사람이 어떤 연유로 공이 있어 실록에 기록한다'라는 사실 뿐이다. 따라서 결과만 제시된다. 이는 감동과 흥미성을 지향하는 문학과 달리 사실의 전달과 교훈성이 중시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록의 만덕에 관한 기술과 만덕전의 기록 사이에 사실과 허구라는 요소의 개입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채제공의 만덕전에서는 기생이었던 신분이 양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게 제시되지만 실록에서는 임금의 그의 공덕을 보고받고 적절한 포상을 한 점이 강조되어 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양인이 기민을 구출하든 기녀가 구출하든 상관없이 기민구출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표현이다. 양인이든 기녀이든 임금의 백성이기에 이는 지배층의 치국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실록 편찬자의 주관이 철저히 배제된 실록과 달리 만덕전은 주관이 개입되어 있어 역사기록의 속성보다는 문학적 속성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문학적 속성이라 함은 채제공의 만덕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만덕의 신분과 문학화

채제공의 만덕전에 따르면 만덕은 탐라의 양가집 딸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어 기녀에게 몸을 의탁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관의 기적에 이름을 올리고 기녀일을 했으나 본인 스스로는 기녀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20여 세가 되자 관에 읍소하여 관기에서 삭제하고 양가의 딸로 돌아왔다고 한다.

왜 만덕이 기녀에서 양인으로 돌아오고자 했는지를 당시 조선조 신분체

계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조의 신분체제는 양천, 사서(士庶), 사농공상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신분제도는 치자계층과 피치자계층의 2분법으로 나뉜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양반이 치자계층에 중인, 상민, 천민이 피치자계층에 해당한다.¹¹⁾ 천민은 노비, 광대, 무당, 창기, 백정 등이 속했으니 만덕이 기녀였다면 천민 계급에 속하는 셈이고, 기적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었다면 상민이 되었다는 뜻이다.

기녀는 조선초기부터 있던 제도인데, 그 종류는 여악(女樂), 의녀(醫女), 창기(娼妓),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기(官妓)를 뜻한다. 이들의 신분은 천인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같은 존재였다. 기녀는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 번 기적(妓籍)에 올려지면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령 양반과 혼인하더라도 그 자식은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아들은 노비, 딸은 기녀가 되었다. 기녀의 신분은 관아에 예속된 채 세습되었다. 늙거나 병이 들어 기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딸이나 조카 혹은 여자아이를 대신 들여보내야 했을 정도로 그 지위가 세습되었다. 이를 벗어나려면 돈을 바치고 속량되는 경우가 아니면 평생 벗어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녀는 모녀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를 잇는 기녀 외에도 일반 백성이나 양반의 자식이 기녀가 되기도 하였다.

흉년이 들어 가족이 흩어질 때 흔히 여자아이는 기녀로 팔려갔으며, 역적 집안의 여자들이 강제로 기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이 굶어죽게 되었으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는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난에 굶주렸던 만덕은 기녀가 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양어미를 기녀로 두는 바람에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기녀가 된다. 한 번 기녀가 되면 평생 벗어날 수 없었으며, 천민의 굴레를 지고 살아야 했으므로 철이 든 후, 그녀는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한 셈이다.

그러면 정조실록의 '제주기 만덕'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1)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69, pp.166-177. 5편 2장 신분제도 참조

조선조 기녀에 대해 설명하면, 기녀의 활동기간은 15~50세인데 어린 기녀를 동기(童妓), 나이 든 기녀를 노기(老妓), 노기보다 나이가 많아 퇴역한 기녀를 퇴기라고 불렀다. 기녀 중에는 관기 외에도 양방(兩房)기생이라고 하는 내의원 혜민서 소속 의녀인 약방(藥房)기생과 상의원(尙衣院)의 침선비(針線婢)인 상방(尙房)기생이 있다.

같은 기녀라도 창기는 천민이지만 내의원 의녀는 중인신분이다. 내의원 의녀는 실제로 임금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하기에 임금을 만날 수 있다. 만덕이 기민을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금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분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임금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도록 채제공은 편법을 써서 의녀반수직을 내리고 임금을 뵈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만덕은 어렸을 적에는 양인이었다가 기녀를 수양모로 맞으면서 기생이 되었고, 다시 양인 신분을 획득했는데 임금을 뵈알하기 위해 기녀반수직을 받은 셈이다.

따라서 채제공이 양인이라고 하는 만덕을 사관들이 기녀로 기술했던 것은 그녀를 폄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으로 대접한 것이라 여겨진다. 신분적으로는 천민보다 양인이 우월하지만 궁에서 의술을 펴는 내의원 의녀가 되는 것은 나라에서 신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록인 실록에는 내의원 반수의녀라는 뜻으로 「제주기」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만덕이란 그녀의 이름에 관심을 가져보자.

오늘날 가문을 중시하고 부계혈족을 중시하는 우리민족은 과거,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순수 토박이 말로 지었던 이름이 한자의 유입과 성의 보급에 따라 한자식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신라 경덕왕(지증왕시) 때 지명을 한자로 바꾼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심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혁거세를 불거늬라 하거나, 고양부를 높은이, 어진이, 밝은이로 푸는 것 등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 토박이 이름들은 출산 장소에 따른 것(마당쇠, 부엌손, 축항둥이

등), 간지나 달 이름에 따른 것(갑돌이, 정월이, 을생이 등), 성격에 따른 것(억척이, 낚작이 등), 기원을 곁들인 것(딸고만이, 불드리 등), 순서에 따른 것(삼돌이, 막내 등), 복을 비는 천한 것(개똥이, 돼지 등) 그 외로 동식물 어류 이름에서 딴 것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 호적을 정리하면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호적에 올린 이름의 흔적을 흔히 찾을 수 있다. 옛 어른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름을 갖지 않았고, 특히 여자 아이는 큰년, 셋년, 족은년, 말젯년 등으로 불렸다. 해녀일을 하다가 출산을 하면 그에 맞춰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오늘날의 이름처럼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덕이 어릴 때부터 천덕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는 천덕 역시 다른 의미의 이름이었다가 한자를 취하여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만덕이 1739년 태생이므로 이름이 없었으리라 추정되는 바, 만덕이라 칭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정비석은 기녀열전에서 김만덕의 부친이 선견지명이 있어 만덕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삼국사기 권제32 잡지(雜志) 제1, 祭祀樂條에서 신라 음악을 설명하면서¹²⁾ 우륵이 신라인 3명 중 1인인 '대사 만덕'에게 음악의 업을 전했다는 기록이다. 이를 정비석은 계고는 가야금에 출중하고, 대나마법지는 노래, 만덕은 춤에 출중하였다고 풀고 있다. 따라서 관기인 만덕이 뛰어남을 설명하려니 춤을 잘 추는 만덕으로 바꾸고, 문학 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김만덕이 기녀가 될 재질을 타고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¹³⁾

12) 삼국사기 권제32 잡지(雜志) 제1, 祭祀樂條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신라 고기에 말하기를 가야국의 가실왕은 당의 악기를 보고 이를 만들었는데 왕은 계국 방언과 각각 성음이 다르므로 어찌 같을 것이냐 하고 곧 악사성에 있는 열현사람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지었는데 뒤에 우륵은 그 나라에 난리가 일어났으므로 악기를 가지고 신라진흥왕에게 투입하니 왕은 이를 받아들여 국원에 안치하고, 곧 대나마주지, 계고와 대사 <만덕>을 파견하여 그 업을 전수케 하니, 이들 3명은 그의 11곡을 전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는 번거롭고 또한 음난하여 아정하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는 이를 5곡으로 약제하니 우륵은 처음에는 이를 듣고 노하였으나,」

이렇게 볼 때, 만덕은 어렸을 적에는 이름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기적에 올릴 때 만덕이라는 기생명으로 이름이 올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록에서 '濟州妓萬德'은 바로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채제공의 만덕전에서 官府籍萬德名妓案이라 하여 만덕이란 이름으로 기적에 올렸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김석익은 탐라기년 정조 19년조에서 行首金萬德이라 하여 기녀라는 말을 뺀 기녀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설명으로 보아 만덕은 가난 때문에 기녀의 딸이 되었다가 기적에 만덕이란 이름을 올렸고, 어떤 계기로 양인이 되어 기민을 구휼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녀라는 직책으로 임금을 뵈었던 셈이 된다.

여기서 신분이 낮은 인물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 빈민을 구휼했다는 사실은 당시 지배층의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평가되었기에 그녀는 충분히 문학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3. 갑인년 흉년과 만덕의 구휼

1) 갑인년 흉년

그녀가 거상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점은 그의 경제적 안목과 사업수완을 엿볼 수 있는 점이나, 무엇보다 그녀를 이름나게 한 것은 그렇게 벌여

13) <본디 아버지 김 응열이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만덕이라고 지은 데는 깊은 유래가 있었다. 그 옛날 가야국이 망하자 가야금의 창조자인 병약사 우륵은 신라로 투항해 왔었다. 신라의 진흥왕은 음악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그는 우륵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길러서 가야국의 음악을 같이 계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륵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제자 세 명이 있었으니, 계고(階古)는 가야금에 출중하였고, 대나마 법지(大奈麻 法知)는 노래에 출중하였고, 태사 만덕(太舍 萬德)은 춤에 출중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만덕 하면 누구나 춤을 연상했던 것이다. 시골 선비 김응열은 그러한 고사들을 알고 있는지라, 고명딸의 이름을 굳이 만덕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만덕은 모든 기예에 능한 중에도 특히 춤에는 재주가 비상했던 것이다.>

들인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점이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만덕에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인심이 사나워 물조차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갑인년 흉년에도 물은 먹을 수 있었다'고 어려움의 대표격으로 갑인년 흉년을 든다. 이처럼 1794년 갑인년은 제주도 어려움의 대표격으로 거론된다.

제주인에게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를 3災라 하여¹⁴⁾ 수재, 한재, 풍재를 말한다. 5월 장마철에는 홍수의 피해를 입고, 여름에 한달쯤 비가 아니 오면 한발로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을철에는 태풍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된다고 하여 지칭한 말이다. 농사를 지어 살아야 하는 제주민에게 이 3재는 곧 죽음과 다름없었다. 3재가 닥치면 제주는 흉년이므로 제주목민관은 매년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 백성들을 위해 조정에 알려 구호식량을 요구했다.

만덕의 생존 시절 갑인년 흉년의 참상이 어땠는지 목사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내용 중 중요한 것을 뽑아보면 알 수 있다.

- 8월 27일에 동풍이 불었다.
- 대정과 정의현 피해가 더욱 심하다.
- 고금에 드물게 결실이 없다.
- 10월 이후에는 조정의 구호를 바랄 뿐이다. 백성들이 죽는 것을 서서 볼 수 없다.

심낙수는 이러한 어려움을 들어 제주민을 살리려면 2만석의 구휼미를 요청하지만 조정에서는 흉년의 어려움은 제주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이에 대한 체재공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라도 연해읍도 제주와 다를 바 없다.
- 육지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들의 것을 뺏어 제주로 보낼 수가 없다.

14) 山高深谷水災, 石多薄土旱災, 四面大海風災

- 2만석 구호는 전례가 없다.
- 겨울과 봄으로 나누어 구호시키자.

8월 27일 동풍은 태풍으로 추정되는데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던 듯하다. 채제공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라도 연해읍도 피해를 입었으니 고통은 마찬가지로이므로 그들의 식량을 뺏어 보낼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목사 심낙수가 제주민의 피해를 눈뜨고 그냥 볼 수 없어 거듭된 고변에¹⁵⁾ 정조는 “육지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길이라도 있는데, 제주 백성은 그렇지 못하니 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하여 전라감사이서구를 시켜 구호곡을 보내도록 한다.

2) 만덕의 기민 구휼

심낙수 목사의 장계에 임금의 지시로 구호곡을 싣고 제주로 운송 중이던 5척의 운반선이 침몰하고 만다. 제주민은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척박한 제주도의 토질에서 농사를 지어 풍년이 들어도 제주민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데, 정조 16년(1792)부터 무려 4년간 흉년이 들었으니 도내 식량 사정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외부에서 구호곡이 없으면 죽음뿐이다.

15) 태풍이 불고 난 후 피해 상황을 나뉘보니, 제주목은 78리 중 32리가 심하고 대정 정의는 모두 더욱 심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사정은 시일이 급하여 그 중에도 노약자와 무의탁자는 팔라서 공해(公廩)나 혹은 토굴에 머물게¹⁾ 하여 봄 동안에 무상으로 식량을 지급하고, 남은 곡식 150석과 별도로 구획한 백여 석은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서 죽을 쭈어 먹이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심한 자 중에 기아자에 들어가 지 않은 자는 봄 동안 환곡으로 나누어주고 남은 곡식 200석 및 보리 환곡 여분 2천여 석은 지금 10월 초부터 인구를 계산하여 환곡으로 나누어 주면서 우선은 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곡을 받을 자는 卍者는 3만 7919명이고 약자는 2만 4780명이 되는데, 10월부터 명년 보리고개까지 개걸호(丐乞戶) 식량을 구걸하는 집)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한 달에 세 번 순회하면서 쌀을 넣어 주려면 마땅히 2만 2천여 석이 됩니다. 그러나 토곡으로 남아 있는 것이 2천여 석이고, 새로 사들인 곡식이 2천여 석이 있으나 당장에 種子와 公料로 돌아갈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돈을 많이 벌어 호의호식하는 만덕도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것이고, 주위에서 굶주려 죽었다는 소문은 끊임없이 들렸을 것이다. 김통정 전설의 예를 보더라도 흉년으로 인한 기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김통정 장군이 백성을 시켜 토성을 쌓을 때는 몹시 흉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허기를 달래려고 역군들이 배가 고파 인분을 먹었는데 자기가 쭈그러 앉아 똥을 싸고 돌아앉아 그것을 먹으려고 보면, 이미 옆에 있던 역군이 그것을 주워 먹어 버려 제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고 한다.¹⁶⁾

얼마나 굶주렸으면 인분까지 먹었다고 할까. 김만덕 자신이 기생이 된 이유도 굶주림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생사를 판가름 짓는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내 놓는다. 만덕이 500석의 곡식을 사 오도록 하여 1/10은 친족들에게 주고, 나머지 450석은 구호곡으로 내놓았다. 여기서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면서도 친족을 살리려는 그녀의 가문중심 사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이우현 목사와 조경일 판관은 “본주 김만덕 여인은 곡식을 사서 진곡으로 450석을 원납하였고, 전현감 고한록은 진곡으로 보충한 것이 300석에 이르며, 장교 홍삼필과 유학 양성범은 각각 원납곡이 100석이 되니 지극히 가상합니다.”라 임금께 장계를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전 현감, 장교, 유학 등과 객주집 주모인 김만덕과의 신분의 차이로 볼 때, 김만덕의 450석 구휼미는 굉장하다. 임금은 “홍삼필과 양성범이 원납한 100석은 육지에서 1,000포에 필적한다” 하고 순장(巡將)으로 승진 임명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렇게 볼 때 김만덕은 홍삼필과 양성범의 4배가 넘는 것이니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벼슬을 줄 수 없었다. 아마도 이것은 만덕이 여성이었기 때문이지 신분상 천민계급인 기녀였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16) 현용준, “김통정 장군”,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7.

3) 출륙금지령과 만덕의 금강산유람

새로 부임한 유사모 목사가 상을 내리겠다는 임금의 유지를 전하자,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소원이 있다면 한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리러 보고, 천하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습니다.”고 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1천 1백여 명을 기아에서 살려낸 공적에 비하면 금강산 유람을 하겠다는 그녀의 소원은 너무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었다. 제주민이 마음대로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출륙금지령이라 하는데 이는 인조 7년부터 순조 말 1834년까지 있었다. 출륙금지령의 역사적 배경은 조선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말의 혼란 이후에 많은 유민들이 유입되어 제주도는 인구가 급증하였다. 토지가 척박하고 협소했기에 제주도는 이러한 인구의 증가로 자급 자족이 곤란하게 되자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점점 육지로 떠나는 경향이 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사람이 부족하니 그에 따라 왜적의 침입 등에 따른 자체 방어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게 되고, 굶주림뿐만 아니라 왜구의 침입에 대한 위협까지 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삶을 위해 육지로 도망치게 되고, 인구의 격감은 당연한 결과였다. 1629년 조정에서는 제주도 자체방어에 어려움이 많게 되자 제주도민의 출륙을 못하게 하였고 특히 여성들은 육지인과의 혼인관계까지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순조 말(1834)까지 약 2백년 동안 지속되었다.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살려는 도민을 법으로 가두어두고 어떻게든 살아가라는 법이다. 이 법 덕택에 제주도의 인구수는 증가한다. 하지만 출륙금지령 때문에 제주도민은 본토 구경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꼭 막혀 살았던 만덕이 나름대로 부자가 되어 누릴 것은 다 누린 셈이지만 법으로 금지한 출륙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

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임금의 제안에 법을 어기는 금강산 구경이라는 소망을 피력한다. 지금도 아름답다고 가고 싶어 하듯이 그 당시도 금강산 유람이 부자들에게는 꿈이었던 것 같다.

육지에서 장사하러 오는 상인들을 통해서도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들었을 것이고, 벼슬아치들에게서도 들었을 터이니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은 생기게 마련이다. 다른 나라도 아닌 같은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곳이니 금강산을 보고자 하는 것은 조선 전 백성의 소원이었을 것이다. 조선 제일이라는 명기 황진이도 금강산을 보고 싶어했다는 것을 보아도¹⁷⁾ 그 아름다움은 만덕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만덕이 채제공과 헤어질 때 진시황과 한무제가 해외에 삼신산¹⁸⁾이 있다 했는데, 만덕이 금강산과 한라산을 보았으니 역조나 되는 사내들보다 만덕이 낫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도 만덕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중국인까지 가고 싶어 하는 천하명산이기에 금강산 구경을 원했다는 점은 만덕의 도전적 사고라 하겠다.

17) 유몽인, 진이(황진이), 『한국고전문학전집』 7, 靑榮出版社, 1980 재판발행, p.201.

진이는 천성이 놀기를 좋아하는 여자이다. 그 강산이 천하 제일의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어울려 짝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때마침 장안에 이생(李生)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재상의 아들로서 사람이 호탕하여 명예나 재산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자라 함께 멀리 놀이를 가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았다. 진이는 조용히 이생을 구슬렸다.

“제가 들으니, 중국인은 고려국에 태어나서 친히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라 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것도 신선이 산다는 금강산을 지척에 두고도 구경을 못한데서야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제 이 몸이 우연히 선랑(仙郎)을 만나게 되었으니 함께 신선처럼 노닐기에는 적격입니다. 산과 들을 거닐 간편한 옷차림으로 그 그윽하고 빼어난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온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18) 신선이 살고 있다는 전설적인 산으로 영주(한라산), 봉래(금강산), 방장(지리산)을 뜻한다.

4. 만덕의 문학화 과정

정조실록에는 '제주기만덕'이라 하였고 채제공은 판기였었는데 20세 후에 양인 신분을 획득했다고 한다. 그러면 20세기 연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석익은 탐라기년¹⁹⁾에서 '행수김만덕'이라 하였는데, 김태능은 '義人 김만덕'이라 하여 신분을 벗어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치문은 '萬古奇人 김만덕여인'이라 하고, 제주도에서는 '구원의 여상 김만덕'이라 하여 경제인으로 평가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義女, 醫女'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3단계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① 1단계 해석

채제공의 만덕전

정조실록

② 2단계 해석

김태능, 의녀김만덕, 제주도사론고, (1971, 김만덕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저술), 세기문화사, 1982.

한치문, 萬古奇人 김만덕여인, 탐라실록, 1973, 한진문화사.

③ 3단계 해석

정비석, "濟州妓萬德", 「명기열전」, 1981, 신정사.

부영성, "김만덕",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제주도, 「구원의 여상 김만덕」, 1989.

김봉옥, 「김만덕전」, 도서출판제주문화, 1990.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양중해, "김만덕의 자선",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등이고.

19) 심재 김석익(1885-1956)망국의 슬픔을 안고 후진들에게 애국의 길을 일깨우기 위하여 1918년 편술한 것이다. 편년체로 수록함.

21세기 들어서는 그에 대한 연구논문이 윤치부(2001,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에 의해서 제기되고, 제주도(2002,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대영인쇄사)에서는 제주여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만덕의 위상을 조명하고, 김찬흠(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사)은 사전에 이름을 올리면서 김만덕의 존재를 영원히 기릴 수 있게 하였다.

이 중, 정조실록과 채제공의 기록이 오랜 것이고, 다음은 김석익의 것이나 이것은 채제공의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과 다름없으니 김태능과 한치문의 것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여, 근래에 출판된 것은 3단계에 해당한다. 즉, 원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1차적 변용은 2단계, 2차적 변용은 3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진 셈이다.

최초 기록인 채제공의 김만덕전을 유재건이 이향건문록에 수록하고, 김석익이 탐라기년에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니 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2단계 변용은 김태능과 한치문에 의해 이루어진다. 김태능은 채제공의 원문과 그에 따른 해석을 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13개 항목으로 나눠 집필했다.

1. 머리말 2. 불우한 소녀시절 3. 기생시절 4. 양녀로 복귀 5. 식산에 전력 6. 정조시대의 흥년 상황 7. 구호곡을 기증 8. 왕의 殊異之恩을 입음 9. 滿都의 칭송과 만덕전 저술 10. 김만덕 가계의 대략 11. 만덕의 유덕을 추모하자 12. 채제공 저 만덕전 13. 추사의 김씨가 표창 편액 <1971년 10 김만덕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저술>

한치문은 탐라실록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들면서, 만고기인 김만덕여인의 기민구휼 내용을 실감나게 덧붙였다. 게다가 만덕의 신체 모습을 설명하고, 임금이 잡아주셨던 손을 주단으로 감싸 살빛을 감추었다는 등 그 해

석이 채제공과는 다르다.

3단계 변용부터는 소설로서의 체계를 갖춰간다.²⁰⁾

정비석은 진성기에게 부탁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명기열전을 지었으니 이것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영성은 이를 토대로 만덕이 동북리 사람이라는 근거로 삼아 구좌읍지에 실고, 김봉옥, 양중해 역시 정비석의 소설적 해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김찬흠도 이를 토대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도 20세기 들어 김만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1971년 정태부가 주동이 되어 김만덕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모충사로 그녀의 묘를 이장하면서 만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앞의 '역사적 사실과 전문학'을 논의하면서 정조실록의 기록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기녀에서 양민으로의 회복,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입경하여 의녀반수직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작가들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해 보려 한다.

1) 어린 시절

부모가 일찍 사망하고 형제가 이별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대목이다. 부모 사망 단락을 보면 조실부모하여 어려서 고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전국에 유행병이 돌았기에 이로 인해 만덕의 부모에게 불상사가 닥쳤다는 것으로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하고 있다.

20) 김만덕의 행적에 대한 평가로서 최초는 채제공이 썼다. 두 번째로 김태능의 “義女金萬德傳”, 『濟州島史論考』, 406-437면, 1971. 만덕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집필. 그 다음은 김봉옥의 「김만덕전」,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37-96면. 다음으로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108-151면. 정비석, “濟州妓萬德”, 『명기열전』, 1981, 239-335면. 유재건, 『이향견문록』, 가정을 일으키고 지킨 여인들 중 28. “임금이 소원을 들어주도록 명하다-만덕”, 1862(조선 후기 중인 문학가 유재건(劉在健:1793~1880)이 1862년(철종 13)에 편찬한 책

형제가 이별한 것도 목동이나 사동으로 고용되어 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의 단계에서 결혼하는 오빠의 이야기까지 있다.

2) 기녀 입적

제주성 내에 살던 한 기녀가 수양딸로 삼아 기적에 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고향이 동북리이며, 퇴기인 월중선, 또는 한매가 데리고 산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구좌읍지에 만덕이야기가 실리는 계기가 된다.

3) 기녀시절

기생이 된 것은 가문을 더럽혔다고 생각한 만덕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화류계를 벗어나 자신이 나아갈 좌표를 정하여야겠다고 한다.

정비석은 여기에 갑부의 유혹 모티브를 넣어도 극복했다고 하고, 김봉옥은 기억에 종사함으로써 가문을 더럽혔다는 형제들의 원성을 제시하여 심리적 갈등이 있었음을 보인다. 어쨌든 만덕은 제주 제일의 기생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4) 위기 극복

이는 만덕전에 없는 내용이다. 굳이 관계를 짓는다면 지위가 낮은 탐라 벼슬아치들의 구혼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를 김태능, 정비석, 양중해는 설화모티브를 취하여 흥미롭게 구성했으나 김봉옥은 전기의 특성상 불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이 모티브를 제외시켰다.

5) 양인회복

관에 흡수하여 기안에서 이름을 삭제한다. 이 과정에서 김태능은 만덕

자신이 반성을 하여 기적에서 삭제하게 되지만, 정비석은 고선홍과의 사랑을 제시하여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봉옥과 양중해는 조상제사를 철저히 지키고 있어 양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6) 사업으로 식산

만덕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논자들의 공통되는 점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과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 채제공에 따르면 축재의 소질이 있고, 물건의 귀천관계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에 맞추면, 기생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정보, 당시 사회의 흐름, 투자와 자금운용 등이 만덕의 특징인 셈이다. 그 결과 정비석은 객주집을 시작한 지 1년 후부터 천냥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김봉옥과 양중해는 제주의 조냥정신을 가미시켜 만덕이 표본적 인물임을 강조한다.

7) 빈민구휼

전래 없는 흉년으로 제주민들이 다 굶어죽을 상황이 되자 만덕은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사 오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굶으며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살려내자고 의지를 굳힌다. 그러면서도 미래를 위해 아끼지 않은 사람보다 부지런히 애쓴 사람을 먼저 도와준다.

김태능, 정비석, 양중해는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봉옥은 역사적 사실을 들며 빈민구휼의 타당성을 보인다. 역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계다가 큰 술 두 개를 걸어 콩죽을 쑤어 빈민을 먹였다고 하거나, 정비석은 관덕정 광장과 삼성혈 길목에 가마솥을 십여 개씩 걸어놓고 굶주린 자들을 먹였다고 한다.

현재 지명으로 동문, 서문, 남문이 있는 곳은 성이 둘러친 곳이었으며, 삼성혈은 남문 밖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활발하게 서던 곳이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남문 밖으로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삼성혈 길목에서 굶주린 자들을 먹였다는 것도 상상력의 발현일 것이다.

8) 내의녀반수직

다른 사람은 임금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내의녀 반수직을 받게 되었다고만 하지만 정비석은 재미있게 그 연유를 제시한다.

<제주의 명의였던 황을 여사는 저의 집 이웃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소인이 그분을 가끔 찾아 뵙고 의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생업이 따로 있는 까닭에 의술에 대해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중략--- 그대와 같이 총명한 여인이 명에게서 의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면, 비록 명의는 못됐을 망정 툇팔이 의원은 될 게 아니냐. 하하하.... 그러면 성상을 배알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대에게 행수내의녀의 직함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만덕은 행수내의녀라는 벼락 감투를 쓰고, 다음날은 대궐에 들어가 황궁하께도 대왕을 배알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명기열전, 319-320) >

만덕이 어떻게 하여 내의녀 반수직을 하사받게 되었는지 그 역시 해명할 길이 없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치문은 임금이 만덕의 왼손을 잡고 칭찬해 주자 만덕은 58세부터 7순까지 주단으로 감아 살빛을 감추었다고 하고 정비석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설화적 요소의 수용으로 볼 만하다.

이상의 내용은 김만덕전 작가들의 비교표를 참조한 결과이다. 비교표의 내용으로 보아 1단계는 김태능의 글이 한치문에 영향을 미쳤고, 한치문은

설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김만덕전을 완성했다. 2단계는 정비석이 명기열전에서 소설로 완성시켰고, 이를 토대로 김봉옥, 양중해의 글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마무리

18세기 말 제주 여성으로 1,100여명이나 굶주림에서 구출해 낸 만덕의 행적에 대해 20세기 들어 많은 찬자들이 재평가하였다.

그들의 평가를 정리하면 만덕은 12살부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게다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적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생으로의 자세 곧, 예, 악, 서, 무 등을 빼어나게 익혔다.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행수기생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결정이 빨랐다. 기적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하겠다고 결정하면 일찍 그를 시행한 셈이다. 20대 초반이면 한창 꽃피는 나이임에도 양인으로서의 신분 변화를 과감하게 결정했다.

경제행위에 대한 감각이 빨랐다.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경제원리에 따르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매매하고 수익을 남기는 일이다. 만덕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면 제주에서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육지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품을 통해 수익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출륙금지령으로 제주를 떠날 수 없는 처지에서 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람을 다루는 인사관리가 출중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는 실학이 팽배해 있었고, 사농공상의 신분체제로 하류층이 아니라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글을 읽던 양반이 장사를 하는 것처럼 상업인들이 대우를 받았다.

만덕은 이러한 사회배경 하에서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단점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게다가 가족과

친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아가 제주도민들을 구하는 박애정신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류애의 마음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체제공은 그의 됴됨이를 기리고자 만덕전을 지었고, 후세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대궐구경과 금강산 유람이라는 소원은 만덕의 포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정조가 만덕에게 상을 내리고자 할 때, 만덕의 요구는 상을 받기도 면천받기도 원치 않고 바다를 건너와서 왕성과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당시인들이 신분상승을 위해 모든 재산을 국가에 바치는 상황하에서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일성록의 기록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그러한 평범성을 벗어난 성격이 확대되어 한쪽 눈에 동공이 2개 있다는 설화적 인물로 화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에 만덕을 재탄생시키는 데는 먼저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는 기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만덕전 작가들의 비교표>

단락소

1. 부모사망

- ① 김태능(1971) : 부모 유행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 ② 한치문(1973) : 유시에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고생하며 자랐으나 장성한 후 더욱 의탁할 곳이 없었다
- ③ 정비석(1981) : 그녀가 열 살 때에 김씨 문중에는 뜻하지 않았던 커다란 재앙이 닥쳐왔다. 부처님처럼 자애롭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립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화불단행이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애통에 잠겨 있던 아버지마저 얼마 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④ 김봉옥(1990) : 1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6월에는 어머니마저 호열자로 사망하였다.
- ⑤ 양중해(1998) : 이 돌립병은 들불처럼 번져 나가더니, 드디어 만덕의 집에 까지 밀어닥쳤다. 먼저 아버지가 눕고 이어 어머니가 눕더니, 며칠 사이에 세 남매난 남겨두고, 그의 부모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다.

2. 형제이별

- ① 김태능(1971) : 형제 : 동리 사람집에 목동이나 사동으로 고용되어 나갔을 것이다.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그리하여 세 남매는 졸지에 사고무척한 천애의 고아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 ④ 김봉옥(1990) : 당시 만석의 나이 23세 만덕 12세, (중략)만석은 백부의 도움으로 동네 부씨에게 장가들어 집안을 이어가고, (중략)만재는 백부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다.
- ⑤ 양중해(1998) : 며칠 사이에 세 남매난 남겨두고

3. 외모

- ① 김태능(1971) : 재색을 겸비한 명기
- ② 한치문(1973) : 만덕은 몸이 부대하고 키가 크며 언어가 유순하였고 외모에도 후덕한 빛이 나타나며 눈은 童瞳이었다.
- ③ 정비석(1981) : 나이는7-8세 가량 되었을까, 첫눈에 보아도 눈이 어글어글하게 빛나고, 용모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였다.
- ④ 김봉옥(1990) : 만덕의 타고난 미모와 후리후리한 키에 상냥한 성품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정결한 몸가짐과 뛰어난 기예는 널리 알려졌다. : 장안 화제가 된 만덕 : 만덕의 외모 : 만덕의 얼굴을 보니 나이가 60이라 하지만 40 정도로 예쁘게 보이었소. 후리후리한 키에 눈은 쌍꺼풀이고 눈매가 맑아 마치 관음보살 같았소.
- ⑤ 양중해(1998) : 없음

4. 기녀입적과 삭제

- ① 김태능(1971) : 제주성내에 한 기녀가 살고 있었는데 (중략)이 여아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잔 심부름도 시키면서 양육하고 친딸같이 사랑하였다. 관청에서 권유 겸 강요가 심하였고, 또 만덕의 주위사람들의 권고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 ② 한치문(1973) : 할 수 없이 몸을 교방(기방)에 의지하고 생활을 영위하나 근검과 절약을 위주하니 자산이 점점 치대하여 갔다.
- ③ 정비석(1981) : 고향은 동북리이며, 어릴 때는 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는 퇴기 월중선이 데려다가 기생수업을 시켰다.
- ④ 김봉옥(1990) : 동네 여인의 주선으로 한 기녀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39 만덕이 18세 되던 해 수양어머니가 갖은 방법으로 그를 유혹하여 기적에 올리게 하였다

- ⑤ 양중해(1998) : 寒梅 또는 大山이라고 불리는 한때 기생이 만덕을 데리고 살았다

5. 기녀시절

- ① 김태능(1971) : 가문을 더럽힌 죄를 씻으려면 무엇이든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들렸다. 그래서 기생만덕은 화류계에서의 방랑과 사치와 허영 등 퇴폐적인 생활에서 하루바삐 벗어나서 자기가 장래 나갈 좌표를 정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여 분연히 일어섰다.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게다가 나이가 들어 혼인할 나이가 되자, 제주읍에 사는 부자 한량 이시현이 천냥 거금을 낼 테니 만덕의 머리를 없게 해 달라고 하자 만덕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제주 남자가 아니면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거절한다. 17세 되던 해는 관기임을 들어 신입사모가 수청을 들라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량들이 머리를 없여주겠다는 감언이설을 거부하고 직접 고선홍을 만나 두 딸을 거느리고 가정을 꾸릴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고 허락을 받아 기적에서 삭제되었으나 혼인식을 앞두고 돌림병에 죽고 만다.
- ④ 김봉옥(1990) : 만덕의 기억 종사와 삭제 : 만덕은 기억에 종사한지 5년만에 명기로서 이름을 날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지만 항상 마음 속에는 번민이 있었다. 그것은 형제들로부터의 싸늘한 원성이었다.
- ⑤ 양중해(1998) : 만덕의 장래에 대하여 진실로 걱정해 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녀 스스로 관기가 되도록 기적에 오르는 것을 승낙하였으니, 17-8세를 넘기면서 만덕은 이미 기억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6. 기적에서 벗어나려는 뜻

- ① 김태능(1971) : 다시 양녀로 회복시켜 주시면 집에 돌아가 힘껏 노력하여 친가를 재흥시키고, 또 남은 힘이 있으면 곤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다하고자 하오니,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고선홍과의 사랑을 추리해 놓은 것 같다
- ④ 김봉옥(1990) : 특히 정월 12일 아버지의 기일과 6월 3일 어머니의 기일에 친척들이 모이면 선비의 집안이 만덕으로 하여 천민의 대접을 받는다는 원

망의 소리다. 만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집안에는 타격이 컸다. 이로 인해 만덕은 조상에 대해서 면목이 없고, 자기로 인하여 동기간이 천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 ⑤ 양중해(1998) : 만덕이 기적에서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 제주목사 신광익과 제주판관 한유추에게 탄원할 때, 그녀는 자기가 이와 같이 기방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또한 목사와 판관을 설득시키기 위해 이름 있는 서울 손님이 오자 목사와 판관을 동석시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한다. 만덕은 오늘이 선친의 제사인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한다.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판기로 있지만 자신은 양가집 처자와 같이 조상을 모시며 유학을 숭상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7. 위기극복(전설)

- ① 김태능(1971) : 전해오는 이야기라 밝히고 탐욕과 호색의 목사가 부임하여 왔을 때 역시 수청들라 하자 사또님은 선대감과 얼굴이 꼭 닮으시네라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어젯 밤 꿈에 선대감님을 뵈었는데 412 : 이상은 장우철 편, 진선미 참조.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만덕이가 17세 되던 해 제주 목사가 부임하여 관기이니 수청을 들라하자 소복단장으로 나아가 죽을 각오로 나섰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 위기를 극복한다.
- ④ 김봉옥(1990) : 때로는 호색한 자들이 집요하게 유혹하며 치근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준 열녀 김천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가무와 거문고로 응수하여 고비를 넘겼다.
- ⑤ 양중해(1998) : 한양에서 순무어사 홍상성이 내려왔을 때 수청들라 하자 “어르신 얼굴이 어르신 선친의 얼굴과 그렇게도 닮으실 수가 있습니까?”고 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8. 어떻게 양인이 되었는가

- ① 김태능(1971) : 세 번째는 직접 파난과 목사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였다. 당시 목사는 신광익이요 판관은 한유추인 듯하며 만덕이 나이는 23-4세요, 시대는 영조 37-8년 경인 듯하다. (중략) 친가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겠다. (중략)기적에서 기명을 삭제한 후, 다시 양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었다. 12년 만에 3남매가 서로 만나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던 것이다.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없음
- ④ 김봉옥(1990) : 사또께서 이를 불쌍히 헤아려주셔서 기안에서 재명하여 양녀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소녀는 친가로 돌아가서 친가를 재건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힘이 있다면 저와 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중략) (양녀로 복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기적 입적이 주위의 뜻이었음을 밝히고 눈물로 호소하여 기안에서 재명받았다
- ⑤ 양중해(1998) : 없음

9. 객주집

- ① 김태능(1971) : 오라비 형제에겐 농사짓고 목장하게 하고 자신은 장사하기로 결심하여 그는 우선 자기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주막을 겸한 객주업을 시작한 듯하다. 만덕의 영업은 불과 수년에 유수의 객주업으로 발전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몰산객주 :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무엇을 해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눈앞이 막막하였다.
만덕은 지금 당장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이 돈이었다. (중략)(그렇다! 이제부터 친절을 부흥시키고, 두 고아를 어엿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도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만덕은 그날부터 두 팔을 걷고 나서서 부둣가에서 몰산 객주집을 차리기로 하였다. (중략 만덕은 석 달이 채 못 가 수하에 쓰고 있는 고용인이 십여 명이나 되었고, 그 때부터는 돈이 쏟아지듯 모일 뿐만 아니라, 어엿한 도매 상인 행세까지 하게 되었다. 291면 : 만덕은 객주집을 시작한 지 1년 후부터 이미 천냥 부자가 되었다.
- ④ 김봉옥(1990) : 1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만덕은 오빠들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었다. 한때 기녀로서의 빛을 다 청산한 기분으로 즐거웠다. 만덕이 한창 나이였으므로 기안에서 제적되자 지체 있는 집안에서 청혼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일찍이 결심한 바가 있어서 이를 물리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약간의 돈으로 객주집을 차리기로 하였다. 만덕은 수년 동안에 자본도 축적되고 이름있는 거상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특히 창고를 지어 물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도 하게 되니
- ⑤ 양중해(1998) : 없음

10. 구휼에 대한 평가 : 돈을 벌게 된 계기

- ① 김태능(1971) : 만덕이 돈을 버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기에 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 친가를 재흥시키고, 다음은 제주를 위하여 또는 고난에 허덕이는 모든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만덕의 이상과 포부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영업전략을 보면, 물자의 유통경로와 교역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자, 기생 시절의 경험과 견문 등을 살려, 관청 용품, 관리 집안의 일용품 등을 비롯하여 기녀들의 의복감과 장신구와 화장품 등 특수인들이 쓰는 상품을 그들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고 제주와 육지의 물품을 필요한 곳에 수집·제공함으로써 큰 돈을 벌게 되었다. 특히 물건이 흔하여 가격이 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염가로 사 두었다가 품귀하거나 시세가 오르게 되면 고가로 팔아 이득을 보았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사회활동이 없었던 여성에 비해 여성의 능력이 과시된 표본이었으며, 자립활력이 강한 탐라여인의 대표적 실례로 자랑하고 있다.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육지에서 장사차 오던 상인이 표류해 갔다가 겨우 제주에 도착했는데, 이미 시기가 지나 물건을 팔지 못하자 만덕에게 싸게 맡긴다. 만덕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그 물건을 맡아버렸는데, 그 해 가을에 삼남 일대의 목화가 대홍작이어서 그해 겨울에는 필목과 솜값이 다섯배로 뛰어 일약 거부가 된다. 또 제주에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물건이라도 서울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물건 즉 우황, 모시포, 진주 등이 있음을 알고 헐값으로 사 모아서 서울 장사꾼에게 넘겨 많은 이득을 남겼다. 그러던 제주에 정조 16년-19년(1792-1796)까지 4년 동안 계속하여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다.
- ④ 김봉옥(1990) : 게다가 만덕의 장사는 위탁매매, 물자의 유통경로와 교역에 대한 물정 인식, 장사는 물자의 유통과 수요자의 편의를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 박리다매, 육지 상인들이 제주의 토산물을 사고 가는데 적정한 값으로 수매하였다가 이득을 보고 넘겨주는 중간상인 역할, 그러면서 박리다매, 정가매매, 신용본위를 지켰다. 기녀들에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상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 관가의 물품까지 공급 등 오늘날 사업수완으로 건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조냥을 했으니 금방 큰 돈을 벌게 되었다.
- ⑤ 양중해(1998) : 기녀시절의 지면과 경험과 견문을 심분 이용하였다고 한다. 만덕은 장사를 하는데도 그녀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었다. “장시를 흥쟁흥민 상점에 내놓을 상품이 시어사 흥주마는, 그만한 분량의 상품은 늘 창고에 시어사 흥고, 그만한 물건을 살만한 행전이 늘 주맹기에 가정 시어사 흥다.” 지금 세 오누이가 뿔뿔이 헤어져서 살고 있는 것도, 조실부모한 불행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다 너무도 가난하였기 때문이다.

11. 구휼의 뜻

- ① 김태능(1971) : 고생살이를 하여야 한 것이 모두 우리 집이 가난한 때문이

었으니, (중략)친가를 재흥시키기로 노력하고, 그 다음은 내 지방을 위하여 또는 고난에 허덕이는 모든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이든 보람있는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이 젊은 만덕 여인의 이상이요, 포부였던 것이다.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없음
- ④ 김봉옥(1990) : 없음
- ⑤ 양중해(1998) : 기민들은 벌써 부황으로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기 전에 이 기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의 재산을 바치자.

12. 빈민의 아사를 보고 만덕의 생각

- ① 김태능(1971) : 소녀 시절에 기생이 되어 불우했던 내가 함정에서 벗어 나와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관인들과 이웃사람들의 덕택이며, 나의 초지(初志)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어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었던 까닭에 내가 일평생을 여자 독신으로 식산에 전심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소망이 이루어졌고 제주도 중에서 나를 가리켜 부자 여인이라 하고 있다. 내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수전노나 탐욕의 화신도 아니다. 이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내 재산을 죽여가는 내 지방 사람들을 위하여 하루바삐 아낌없이 유효적절하게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식산에 노력한 목적인 것이요, 또 나의 본회이기도 하다. 부자의 길을 보여줌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절량 기민들은 죽지 않으려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어서 산과 들도 적토(赤土)가 되어 버렸건만, 그래도 아사자는 속출하였다.(중략) 만덕은 그 동안에도 자기 나름대로 기민 구제에 힘을 써왔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에서조차 손을 들어버려서 제주 거리에는 가는 곳마다 아사자의 시체가 즐비하지 않은가. 만덕은 이우현 목사에게 달려가 (중략) 정비석이 만덕을 통한 평가는 관은 소극적이며, 무대책임 반면, 만덕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구휼하고, 정부에 대해 백성이 없는 통치자가 있을 수 있는가라며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오늘날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나, 제주 백성은 제주 스스로 지켜야 하겠다는 자주주의식의 소유자가 만덕이라는 주장
- ④ 김봉옥(1990) : 없음
- ⑤ 양중해(1998) : 재산을 내놓을 때 비장함을 서술한다. 만덕은 그동안 근검 절약하면서 이루어놓은 재산을 다 내놓는다고 생각하니 비장한 생각이 들었다. "이 고장 사람들이 날 도와주란 나도 장시를 먹고 돈도 버슬었다. 이 고

장 사람들이 몹시 어려운 지금, 내 이 고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내 재산을 돌려주어서 헝기여”

13. 아사자구홀전설

- ① 김태능(1971) : 없음
- ② 한치문(1973) : 이력저력 제주도는 연하여 갑인년 같은 흉년이 들어 개국 400년 정조조 19년 봄에는 제주도민이 모두 기사지경에 당하였다. 때에 김만덕은 큰 솥 두 개를 걸어놓고 콩죽을 쑤어서 매일 한그릇씩 주며 많은 재물을 풀어 사방에서 곡식을 무역해서 1-4월까지 수만생명을 구제하였다.
- ③ 정비석(1981) : 그녀는 보리쌀을 입수하자, 제주읍내의 관덕정 광장과 삼성혈 길목에 거대한 가마솥을 십여개씩 걸어놓고, 거기다 죽을 쑤어서 누구든지 굶주린 사람에게 죽을 한 그릇씩 나눠 주기로 하였다.
- ④ 김봉옥(1990) : 없음
- ⑤ 양중해(1998) : 가장 곤란한 사람, 나이 많은 노인, 어리거나 병약한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한쪽에서는 큰 가마솥을 걸고 죽을 쑤어, 비록 한 사발씩이나마 나누어 먹이기도 하였다. 어느 가난한 사람도 만덕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14. 부자가 되다.

- ① 김태능(1971) : 없음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장롱 속에 숨겨둔 돈이 천 냥 가량 되었을 대의 일이었다. (거상의 필목, 숨, 기명 장사)---중략---그해 가을에 삼남 일대의 목화가 대홍작이어서 그 해 겨울에는 필목과 숨값이 다섯 배로 뛰어 올랐다.그리하여 만덕은 일약 만냥 부자가 되었다. 만덕이가 물산 객주집을 시작한 지 십년이 넘었을 때---수만금의 부자
- ④ 김봉옥(1990) : 만덕의 검소 : 이처럼 만덕은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렇지만 만덕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검소하여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가난하였던 시절을 생각하여 음식도 소식하여 보리밥 조밥을 먹고 주택과 거실은 꾸미지 아니하고 근검과 절약으로 일관하였다. (중략)만덕의 객주집에는 언제나 10여명 정도 일을 도우며 기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만덕은 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풍년에는 흉년 때를 생각하여 절약하고.
- ⑤ 양중해(1998) : 만덕은 사업에 성공하고 큰 재력가가 되면서도, 그 삶은 참으로 검소하였다. 그 옛날 어렸을 때 살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 쓰지 아니하는 것처럼 확실한 돈 벌이는 었다.

15. 의녀벼슬 받게 된 이유

- ① 김태능(1971) : 없음
- ② 한치문(1973) : 없음
- ③ 정비석(1981) : 의녀가 된 이유 : 행수내의녀 만덕
 제주의 명의로였던 황을 여사는 저의 집 이웃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소인이 그분을 가끔 찾아 뵙고 의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생업이 따로 있는 까닭에 의술에 대해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중략) 그대와 같이 총명한 여인이 명의에게서 의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면, 비록 명의는 못됐을 망정 돌팔이 의원은 될 게 아니냐. 하하하.... 그러면 성상을 배알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대에게 행수내의녀의 직함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만덕은 행수내의녀라는 벼락 감투를 쓰고, 다음날은 대궐에 들어가 황공하게도 대왕을 배알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 ④ 김봉옥(1990) : 없음
- ⑤ 양중해(1998) : 없음

16. 임금의 잡아준 손목

- ① 김태능(1971) : 없음
- ② 한치문(1973) : 성상이 친히 만덕의 左手를 잡으시고 못내 칭찬하시되 내가 백성을 많이 구휼하였다 하니 참으로 자선스러운 사람이라 하시고 금강산을 구경시키다. 7순노년까지 성상이 잡으시던 左手는 주단으로 감아서 살빛을 감추었고 부처라 칭하였다.
- ③ 정비석(1981) : 만덕에게 포상을 주고 싶으니, 명주 다섯 필을 지금 곧 가져오도록 하라. (중략)대왕은 만덕에게 명주 다섯 필을 손수 내려주시고, 황공하게도 손목을 가만히 붙잡으시면서, (중략)만덕은 상감에게 손목을 붙잡히자, 황송하고도 감격스러워 얼굴을 수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만덕은 대궐에서 물러나오자, 상감마마께서 친히 붙잡으셨던 손목을 어찌 함부로 비바람을 쐬게 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서, 명주로 자기 손목을 곱게 감았다.
- ④ 김봉옥(1990) : 없음
- ⑤ 양중해(1998) : 없음

■ 참고문헌 ■

「정조실록」

「삼국사기」

윤치부,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제주도, 2004.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연구』, 태학사, 1991.

김균태, "전문학",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 편찬위원회.

유엽저, 최신희 역주, 『문심조룡』, 사전, 제16.

Alan Shelston 저, 이경식 역, 『전기문학』, 문학비평총서 16, 서울대출판부, 1979.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69.

현용준, "김통정 장군",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7.

유몽인, "진이(황진이)", 『한국고전문학전집』 7, 書榮出版社, 1980.

강용삼·김봉옥·김종업·홍순만, 『제주선현지』, 제주도, 1988.

김건우 편역,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2003.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계명출판사, 1986.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태학사, 1997.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김봉옥,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1989.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7.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김석익, 『탐라기년』, 1918.

김찬흡,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사, 2002.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남만리 편, 『탐라지』(일본동경대학소장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민족문화추진회, 『정조실록』 22, 민족문화추진회, 1993.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1987.

송정원 편, 『송정원일기』 93, 국사편찬위원회, 1961.

沈老崇, 『孝田散稿』(국립도서관본)

심노승, 김영진 옮김,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유재건, 『이향전문록』,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 이덕일,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2003.
- 정비석,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2.
-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하,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1.
-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 진성기,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 채제공, 「번암집」, 동화출판공사, 1977.
- 한치문, 「탐라실록」, 한진문화사, 1973.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6.
-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 소재영, “제주의 여인상”, 「국문학 편답기」, 아세아 문화사, 1999.
- 윤치부,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 이순구, “김만덕 :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1」,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 단국한문학회, 1994.
- 최준하, “번암 채제공의 「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1993.
- 현승환,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